

『조선건축』(1947-1949)에 나타난 사회주의적 인식과 건축 담론

Socialist Perceptions and Architectural Discourse in *Chosun Geonchuk* (1947-1949)

유 인 희*

최 성 광**

김 현 섭***

Yu, Inhee

Choi, Sung-Kwang

Kim, Hyon-Sob

* 고려대 도시재생협동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수료, Integrated Master's Degree and Ph.D. Candidate, Grad Program of Urban Regeneration, Korea University, Korea

** 고려대 건축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수료, Integrated Master's Degree and Ph.D. Candidate, Dept. of Architecture, Korea University, Korea

***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Professor, Dept. of Architecture, Korea University, Korea (Corresponding author: archistory@korea.ac.kr)

Abstract

After Korea's liberation from Japan in 1945, architectural discourse began reflecting various ideological explorations, with socialism emerging as particularly notable. Yet, compared to other fields, socialism in architecture has remained relatively underexplored. This study examines how Korean architects in the post-liberation years perceived and incorporated socialist thought into architectural discourse. Drawing on articles published in *Chosun Geonchuk* (1947-1949), it analyzes how socialist ideas — especially Marxist historiography, housing policies, and state-led planned economies — were recontextualized. Findings reveal that young architects educated under the colonial system engaged with Marxist and Japanese socialist architectural thought to critically examine architectural history, housing, and land reform in the Korean context. Their writings redefined architecture as a tool for social transformation rather than as a mere aesthetic expression of the ruling class. However, these perspectives rarely materialized in built form due to political suppression and limited resources. Instead of articulating a concrete socialist program, they expressed aspirations for an ideal architecture through the language of socialism. Overall, socialist discourse functioned less as a political stance than as a methodological tool, underscoring both the ideological diversity of post-liberation Korean architecture and its unresolved pursuit of socially engaged practice.

키워드 : 사회주의, 사회주의적 건축, 근대건축운동, 조선건축, 해방기

Keywords : Socialism, Socialist Architecture, Modern Movement in Architecture, *Chosun Geonchuk*, Post-liberation Periods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45년 해방은 일제강점기 동안 억압됐던 다양한 사상과 담론이 재개되는 전환점이었다. 사회주의 사상은 이미 식민지 시기 독립운동 세력과 지식인, 청년층 사이에서 폭넓게 수용됐으며, 해방 후 새로운 국가 건설의 이념적 기반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논의됐다. 사회주의는 여러 학문 분야에서 비판적 인식 틀로 작동하며 지식인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Lim, 2003; Cho, 2015). 하지만 건축 분야에서 사회주의 사상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건축계 내에서 사회주의 관련 조직 활동이 두드러지지 않았고, 건축 자체의 물리적 속성상 사상적 표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건축계 역시 해방공간의 격동 속에서 사회주의적 문제의식에 일정 부분 반응했다. 해방 직후 결성된 조선건축기술단은¹⁾ 실무 중심의 비정파적 단체였으나, 그

기관지인 『조선건축』(1947-1949)에는 해방공간의 사상적 자유 분위기를 반영하듯 사회주의적 문제의식을 담은 글들이 일부 게재됐다. 역사에 대한 유물론적 시각, 민중을 위한 건축, 토지·주택문제에 대한 비판적 접근 등이 그것이다. 당시 건축계는 전반적으로 기술 관료 중심의 보수적 경향이 강했지만²⁾ 이흥구, 성낙천, 손형순 등은 『조선건축』을 통해 사회 개혁적이고 민중 지향적인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건축의 사회적 역할에 비판적으로 접근했다.

해방 전후 건축계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적 관심은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시작됐으며, 특히 건축운동연구회를 중심으로 전개됐다.³⁾ 이들은

1) 조선건축기술단이 해방 후 첫 건축단체로 출범했고, 1947년 조선건축기술협회로 개칭한 후 1954년 현재의 대한건축학회로 발족했다.

2) 미군정은 남한 내 학술단체의 정치성향을 조사한 바 있는데 조선건축기술단은 우익성향으로 분류됐다(Song, 1993).

3) 1987년 실무건축가 중심의 청년건축인협의회 조직에 이어, 1989년 대학원생들이 주축이 된 건축운동연구회가 결성되어 학술연구를 주도했다. 2010년대 건축계에서는 이를 ‘건축운동’으로 정의하며, 2013년 『건축과 사회』 특별호와 2017년 국립현대미술관의 「종이와 콘크리트: 한국 현대건축 운동 1987-1997」 전(展)을 통해 주목한

이 논문은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과제번호: RS-2025-00514267.

해방기 건축 활동과 건축가들을 다각도로 조명하며 다수의 학위논문과 단행본을 발표했다.⁴⁾ 이러한 연구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건축인 집단을 발굴하고 그들의 진보적 성향에 주목함으로써 이 시기 건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틀을 제시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다만 이들의 접근은 대체로 민족/반민족, 근대/전근대, 보수/진보 등의 이분법적 구조 속에서 당대 건축을 독해한 경향이 있다 (Kim & Lee, 2006).

해방 이후 건축계의 지식 담론을 다룬 연구 중 『조선건축』에 주목한 사례로는 Song(2003)과 Kim & Lee(2006)가 있다. 이들은 『조선건축』을 통해 당시 건축 담론의 성격과 건축가의 정체성을 각각의 관점에서 분석했으나 사회주의 사상과의 연관성은 주요 주제가 아니었다. Cho(1998)는 『조선건축』 수록 논고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며 일부 논의가 “사회주의적 이념이 결합된 민중화”의 성격을 지닌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담론의 구조나 개념적 맥락보다는 이념적 성격 정리에 그친 한계가 있다.

기존 연구들은 해방기 건축 담론의 진보적 경향을 조명했지만 사회주의 사상 자체가 건축가 및 건축인들에게 어떻게 해석되고 표현됐는지는 충분히 분석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선건축』 수록 글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사상의 인식과 수용양상을 분석한다. 특히 일본 사회주의 건축론과의 연관성을 추적하고, 한국 건축인들의 번역과 재구성 과정을 검토한다. 나아가 계급, 주택, 토지, 분배 등의 주요 개념이 건축 담론에서 표현된 방식과 사상적 지향이 구체적 건축 실천으로 이행되지 못한 배경을 당대 현실 속에서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해방기 건축 담론의 사상사적 의미와 역사적 위치를 재구성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조선건축』에 실린 논고 중 사회주의적 인식이 반영된 글을 선별해 문헌분석을 수행한다. 해방 직후 관(管)과 자산가 중심의 건축 현실에서 사회주의적 문제의식이 실제 건축 행위나 공간 생산으로 이어지지 못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Table 1. Key articles from *Chosun Geonchuk* for analysis

Categor y	Author	Title	Refs.
Architectural history	Lee Hong-gu	Introduction to architectural history (1), (2) (건축사 개론 1, 2)	1947a; 1947b
	Seong Nak-cheon	A study on the economic history of architecture (1)-(3) (건축경제사의 일고찰 1-3)	1947a; 1947b; 1947c
Land and housing	Son Hyeong-sun	Nation-building and the importance of housing (건국과 주의 비중)	1947
	Lee Hong-gu	Miscellaneous thoughts on the housing problem (주택문제 잡감)	1947c
	Son Hyeong-sun	Current housing conditions and countermeasures (주택 현황과 그 대책)	1948
	Lee Hong-gu	Urban issues of Seoul from an architectural perspective (건축면으로 본 서울의 도시문제)	1949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Park(2013), Kim(2017), Lee(2022) 참조.

4) 이 시기를 다룬 주요 연구로 Kim(1991), Song(1993), Lee(1993)의 학위논문과 Ahn(1996)의 단행본 등이 있다.

연구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서구에서 시작된 사회주의 사상이 일본을 거쳐 한국에 전파되는 과정과 1920~1930년대 일본의 사회주의 건축운동, 그리고 그 건축론이 한국으로 유입된 경로를 다룬다. 3장에서는 『조선건축』에 출판된 논고를 중심으로 유물사관에 기반한 건축사 서술과 토지·주택 담론을 통한 현실 개입 시도를 분석하고, 이러한 담론의 수용 방식과 한계를 검토한다. 결론에서는 전체 논의를 종합하고, 연구의 시사점을 정리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주요 논고는 <Table 1>과 같다.

2. 사회주의 사상의 확산과 건축적 수용 경로

2.1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과 전개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등장한 사상 및 운동으로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통해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입장이다. 19세기 초 오언, 생시몽, 푸리에 등의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시작되어 마르크스에 의해 체계화됐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은 사회주의 운동의 분수령이 되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국제적 확산을 촉진하는 한편, 자본주의 국가들의 자체 개혁을 자극해 영국, 독일, 스웨덴 등에서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주요 정치세력으로 성장했다. 한국에서는 분단으로 인해 사회주의가 마르크스-레닌주의나 공산주의 등 혁명적 사회주의와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로는 페이비언주의,⁵⁾ 길드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와 같은 개혁적 사회주의와 함께 양대 흐름을 형성함을 인식해야 한다(Jang, 2013).

일본에는 19세기 말부터 사회주의 사상이 소개됐으나 다이쇼기(大正期, 1912~1926)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했다. 러일전쟁(1904)과 제1차 세계대전에 따른 급속한 산업화는 노동조합운동의 확산과 함께 사회주의 사상의 전파를 촉진했다. 러시아 혁명 이후에는 공산주의 중심의 급진적 운동이 유입되며 온건한 사회민주주의 세력을 압도하기도 했으나, 1930년대 후반 파시즘 체제하에서 모든 사회주의 정당과 운동은 해산됐다(Kim, 2000).

한국은 러시아와 일본을 통해 사회주의를 수용했다. 대한제국 말 북만주로 망명한 신민회 계열 인사들은 러시아를 통해 이를 직접 경험했고, 일본 유학생들은 당시 일본에 유행하던 사회주의 사상을 비밀결사 형태로 받아들였다. 유럽과 일본의 사회주의가 산업자본주의의 모순 해결을 위한 것이었다면, 한국에서는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목표로 한 혁명적 민족주의와 결합했다. 그 결과 급진적 공산주의 노선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식민지 사회주의 운동의 특징적 양상이었다(Lim, 2003).

3.1운동은 단순한 독립운동을 넘어 재산 균분과 토지분배라는 민중적 이해에 기반한 독립국가 건설의 성격도 지녔다. 이에 3.1운동 이후 사회주의는 조선 민중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한편 3.1운동과 워싱턴 회

5) 19세기 말 설립된 영국의 페이비언 협회(Fabian Society)에서 시작된 점진적 사회주의 사상으로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통한 단계적 개혁을 목표로 한다(Jang, 2013).

의(1921)의 실패로 독립이 요원해지자 사회주의자들은 대중단체 운동으로 노선을 전환하게 된다(Lim, 2003). 일본이 문화정치로 통치를 전환한 1920~1930년대에는 사회주의 운동이 전성기를 맞이했다. 1920년대 초부터 국내에서 마르크스 저작의 번역물이 출판됐으며,⁶⁾ 조선의 사회주의자들은 이를 해방운동의 이론적 무기로 활용했다(Park, 2009). 1925년에는 카프(KAPF)가⁷⁾ 결성되어 러시아 라프(RAPP), 일본 나프(NAPF)와 교류하는 한편, 『개벽』, 『신생활』, 『조선지광』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사회주의 지식이 확산됐다(Choi, 2014).

만주사변(1931) 이후 일본의 파시즘화로 조선의 식민지 지배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사상통제가 강화됐다. 소련과의 대립 속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시작됐고, 치안유지법 적용 확대, 출판·결사·언론 검열 강화, 카프 등 사회주의 조직의 해산과 전향 강요 등이 해방 전까지 이어졌다(Jung, 2000).

해방 후 사회주의는 일제의 탄압에서 벗어나 다양한 정치세력과 결합하며 대중적 기반을 확대할 수 있었다.⁸⁾ 그러나 냉전체제 형성과 함께 미군정의 반공 정책이 강화되고 사회주의 내부의 노선 갈등이 격화되면서 이들 세력은 급속히 위축됐다. 결국 1948년 단독정부 수립과 함께 사회주의 세력은 공식 정치에서 배제됐다(Shim, 1993; Cho, 2015).

2.2 일본 사회주의 건축운동의 흐름

일본의 근대건축은 메이지유신(1868) 이후 서양 건축양식과 기술을 수용하며 시작됐다. 초기에는 영국의 워터스(Thomas James Waters), 콘더(Josiah Conder), 독일의 엔데 & 베크만(Hermann Ende & Wilhelm Böckmann) 등 외국인 건축가들이 고전주의·고딕부흥·절충주의 등 역사주의 양식을 전파했다. 이들의 제자인 1세대 일본인 건축가들은 이들을 사사하거나 유학한 경험 등에 따라 영국과·독일과·프랑스파로 나뉘어 유럽 건축을 습득하고, 일본인에 의한 근대적 건축가 직능을 정착시켰다(Fujimori, 1993a). 다이쇼기에는 서양의 근대건축운동이 소개되기 시작하면서 젊은 건축가들이 역사주의를 극복하고 구조적 합리성과 조형적 자유를 추구한다. 대표적으로 분리파(分離派)나 창우사(創宇社) 등이 이를 주도했으며,⁹⁾ 동시에 급격한 도시화와 사회문제에 대응해 주거와

도시문제를 다루는 ‘사회정책과’도 나타났다(Fujimori, 1993b).¹⁰⁾ Horikawa(1984)는 이 시기를 “문화적 일원적 가치(예술적 가치)에서 다원적 가치(정치, 사회, 문화적 가치)로의 가치 의식의 전환”이 일어난 시기로 규정했다. 1926년 말 시작된 쇼와기(昭和期)에는 러시아 혁명에 따른 마르크스주의 확산과 서양 근대건축운동의 영향으로 건축의 정치적·사회적 측면이 더욱 강조됐다. 근대건축운동의 사회주의 부류에도 수사적 측면이 없지 않았지만, 최소주거 계획개념이나 집합주택의 평등주의적 공간 구성 등은 사회주의적 이념을 근간으로 했다.¹¹⁾

1920~1930년대 일본에서 마르크스주의는 건축계의 정치·사회적 각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1920년대부터 마르크스주의 관련 문헌이 대거 출간되어 건축가들의 사상적 접촉이 용이해졌는데, 기존 건축이 지배계급을 위해 봉사해왔다는 비판과 함께 건축가들의 계급투쟁 참여가 강조됐다(Horikawa, 1984; Tsukamoto, 2024; Kubo, n.d.). 이 시기 대표적인 마르크스주의 건축가로는 야마구치 분조(山口文象, 1902~1978)와 니시야마 우조(西山卯三, 1911~1994)를 들 수 있다.

우선 야마구치는¹²⁾ 「합리주의 반성의 요망(合理主義反省の要望)」(1929)과 「신흥건축가의 실천이란(新興建築家の実践とは)」(1930)을 통해 마르크스주의 건축론을 체계화했다.¹³⁾ 그는 건축에서 기술적 합리성만을 추구하면 사회적 현실을 외면한 공상적 로맨티즘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자연과학과 사회과학(마르크스주의)의 변증법적 결합을 통한 건축 실천을 주장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건축의 경제적 조건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노동자 요양소 계획을 예로 들어 환자 수, 경영비, 건축비용 등을 먼저 결정한 후 그에 따라 공간을 계획하는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했다(Yamaguchi, 1929/2011).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야마구치의 실천론에는 한계가 있었다. 혁명적 상황에서의 실천 방안으로 건축가들이 각 직장에서 직능을 쌓는 것만을 제시했을 뿐, 실제 현장 참여방안은 부재했기 때문이다. 또한 건축 디자인 이론에 대한 논의도 부족했다(Horikawa, 1984).

니시야마는¹⁴⁾ 전전(戰前)의 일본에서 마르크스주의 건

6) 1921년 「유물사관요령기」, 『공산당선언』, 1923년 『임금노동과 자본』 이후, 『임금 가격 이론』, 『유토피아에서 과학으로의 사회주의의 발전』, 『고타강령 초안 비판』 등 다수의 마르크스 저서가 한글로 번역됐다(Park, 2009).

7) 카프(KAPF: Korea Artista Proleta Federacio)는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가동맹으로 1925년 8월 결성되어 1935년 5월 해산됐다.

8) 해방공간의 사회주의는 조선공산당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조선인민당의 점진적 사회주의, 남조선신민당의 반제국주의 민족노선 등 다양하게 전개됐다(Shim, 1993; Cho, 2015).

9) 분리파(1920~1928)는 도쿄제국대학 건축과 출신들이 결성한 단체로 과거의 역사주의에서 탈피하고자 했고 표현주의적 성향을 보였다. 창우사(1923~1931)는 야마구치 분조를 중심으로 결성됐으며 제도공 출신이 다수로 사회적 관심이 강하고 급진적 성격을 띠었다(Fujimori, 1993b).

10) 건축의 예술성보다 기술의 우위를 강조하며 큰 영향을 미쳤던 사노 도시카타(佐野利器) 등의 인물들은 내진구조 확립에 큰 성과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주택과 도시 등 사회문제 개선이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해 노력했다. Fujimori(1993b)는 이러한 부류를 ‘사회정책과’라 불렀다.

11) 바이센호프 주택전시회(1927), 제2회 CIAM(1929)의 주제인 ‘최소주거’, 에른스트 마이가 주도한 ‘새로운 프랑크푸르트’(1926~1933) 등은 사회주의적 주택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다(Kim, 2006).

12) 야마구치는 분리파의 일원이자 창우사 창립 멤버로 창우사 시절 오카무라 분조(岡村蚊象)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 1931~1932년에는 그로피우스 사무소에서 근무하기도 했다(Amanai, 2015).

13) 「합리주의 반성의 요망」은 1929년 11월, 「신흥건축가의 실천이란」은 1930년 12월 『국제건축』에 발표됐다.

14) 니시야마는 일본 주거 연구의 선구자로, 1930년 교토제국대학 입학 후 건축학생단체 ‘dezam’을 결성하며 마르크스주의

축론을 주창한 핵심 인물로 1930년대 활발한 저술 활동을 통해 그 이론을 전파했다. 그는 ‘절충주의(양식선택주의)’를 부르주아 취향에 맞춘 과거 양식의 모방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피지배계급과 서민을 위한 건축을 새로운 건축의 ‘주제(主題)’로 규정했다(Nishiyama, 1948).

니시야마는 이론과 함께 구체적 구상안도 제시한다. 「일본공업도시(日本工業都市)」(1931)에서 소비에트의 선형도시를 참고한 ‘공업도시’ 계획을 구상했고, 「서민주택의 건축학적 과제(庶民住宅の建築學的課題)」(1941)에서는 기존의 개별 건축주-건축가 기반의 건축계획 방법과 달리 서민주택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마련했던 것이다.¹⁵⁾ 특히 생활 최저수준에 있는 도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형(住居型)’ 개념을 통해 표준화된 주택의 대량 공급 방안을 구체화했다. 그리고 1946년에는 이를 확장한 ‘생활기지’ 개념을 제시하며 주택-주구-도시-국토로 이어지는 단계적 체계화를 시도했다.¹⁶⁾ 이는 주(住)생활과 노동생활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공간개념으로, 소학교 중심의 주구 구성을 기본 단위로 하되 소비에트의 도시구성 및 공동주택 구성 논쟁에서 도출된 ‘단계주의’ 방법론을 차용해 각 단계별로 공동시설을 배치하는 체계를 제시했다(Nishiyama, 1967). 이러한 구상들은 러시아 혁명 이후 등장한 ‘러시아 구성주의’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일본 현실에 적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¹⁷⁾

그러나 니시야마의 마르크스주의 건축론 역시 여러 한계를 드러냈다. 그는 마르크스주의를 원전이 아닌 소비에트 모델을 통해 받아들여 처음부터 국가 사회주의적 성격

을 띠었다. 그의 주거형 개념은 개별 거주자의 필요보다 전시 국가정책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활용됐으며, 그 자신도 전쟁을 거치며 프롤레타리아 정의와 거리가 먼 고급기술관료로 변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Horikawa, 1984; Tsukamoto, 2024). 이는 그의 건축론이 순수한 이론적 탐구보다 정책적 도구로 기능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Funo(1994)는 니시야마가 동시대 건축가들에게 역사적 관점과 실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인정한다.

1930년대 초를 정점으로 일본의 사회주의 건축운동과 마르크스주의 건축론은 급격히 쇠퇴했다. 만주사변(1931)과 중일전쟁(1937)으로 이어지는 파시즘 체제하에서 국가의 탄압을 받으며 비공식적 활동으로 전환됐고, 1930년대 중반 대부분 와해됐던 것이다. 이론과 실천의 통일을 강조했던 초기 운동은 현실과 유리된 교조적 형식으로 경직됨으로써 건축 디자인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Horikawa, 1984).¹⁸⁾

2.3 한국 건축계의 사회주의 수용 경로

일제강점기부터 해방기까지 서양 및 일본의 사회주의 건축론은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과 건축인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전해졌다. 일본에서 유입된 여러 문헌이라든가 조선건축회의 기관지 『조선과 건축(朝鮮と建築)』 등을 통해서였다.¹⁹⁾ 특히 미술사가 고유섭은 사회주의 건축론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는 1931년 『동아일보』에 연재한 「신흥예술, 특히 침단을 가는 건축에 대하여」에서 블라디미르 프리체의 『예술사회학』을 토대로 현대를 ‘공업자본주의시대’로 규정하고, ‘아메리카주의’의 사치적 소비문화와 대립되는 ‘소련주의’를 ‘건설적’인 것으로 보았다(Ko, 1931). 그리고 1932년 『신흥』에 발표한 「로서아의 건축」에서는 리시츠키가 제안한 사회주의적 공동주택과 도시계획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표출했다(Ko, 1932).²⁰⁾ 1930년대 박동진과 홍윤식 같은 건축인들도 서양 근대건축운동을 소개하면서 사회주의적 건축관의 영향을 보였다. 박동진은 러시아 구성파를 ‘현대

를 접했다. 그는 전후 주택계획과 공급 이론의 기초를 마련했다(Tsukamoto, 2024). 이 ‘dezam’이라는 말에는 별다른 뜻은 없었지만, 발음이 짧아 보여 선택됐다고 한다(Nishiyama, 1962).

15) 「일본공업도시」는 1931년 ‘dezam’의 공동작업으로 발표됐다(Tsukamoto, 2024). 「서민주택의 건축학적 과제」는 1941년 10월 『건축잡지』 발표 후 니시야마가 1967년 『제1 니시야마우조 저작집: 주택계획(第1西山卯三著作集:住宅計画)』에 「주택계획의 방법론(住宅計画の方法論)」(pp. 359-386)으로 재수록했다(Nishiyama, 1967).

16) 생활기지 개념은 『신건축』 1946년 제1호 「신일본의 주택건축(新日本の住宅建築)」에서 처음 발표됐으며, 이 역시 1967년 저작집에 「제4부 제안-주택복구의 구상(第IV部 提案-住宅復興の構想)」(pp. 469-579)으로 재수록 됐다(Nishiyama, 1967).

17) ‘러시아 구성주의’는 혁명이념 전파와 사회주의적 생활방식의 정착을 목표로 집단생활 주거유형과 사회주의적 도시계획 등을 제안했다(Kopp, 1985/1993). 1930년대 긴즈부르크의 『양식과 시대: 구성주의건축론(様式と時代:構成主義建築論)』(1924; 일역본, 1930)과 체르니호프의 『소비에트 러시아 신흥건축학의 이데올로기 원리(ソヴェートロシア新興建築学のイデオロギー的原理)』(1931; 일역본, 1932) 등이 번역·출간됐는데, 이는 일본 건축가들이 러시아 구성주의 이론을 본격적으로 수용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한편, 1980년대의 야츠카 하지메(八束はじめ)는 ‘constructivism’을 ‘구성주의(構成主義)’로 번역해 온 건축계에 재검토를 요구하며, ‘compositionalism’은 ‘구성주의’, ‘constructivism’은 ‘구축주의(構築主義)’로 구분할 것을 제안한다. 그는 그 배경을 1921년 소비에트 예술문화연구원 인후크(INKhUK)에서의 ‘구성(kompozitsiia) 대 구축(konstruktisiia) 논쟁’에 둔다(Yatsuka, 1986). 다만 본고에서는 이를 당시의 번역에 따라 ‘구성주의’로 적는다.

18) 마르크스주의 건축론은 전후 메타볼리즘 운동으로 계승됐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를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적 물질대사’ 체계로 파악했는데, 메타볼리즘은 이를 차용해 서구 건축의 영속성과 정적 기능주의를 비판하고 도시를 변화하는 유기체로 개념화해 설계에 적용했다(Kawazoe, 1976). 그러나 메타볼리즘은 초기 의도와 달리 사회적 공간의 상품화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귀결됐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Funo, 1981).

19) 조선건축회는 일본인을 중심으로 1922년에 창립된 단체로, 같은 해부터 1945년까지 『조선과 건축』을 발간했다. 이 잡지에 실린 사회주의 건축론 관련 문헌으로는 「건축미에 관하여(建築美に就て)」(小澤武, 1925.3), 「혁명기 러시아 예술의 일면(革命期ロシア藝術の一面)」(藤島玄治郎, 1925.4), 「모스크바의 현대건축(モスクワの現代建築)」(野村孝文, 1929.5) 등이 있다.

20) 고유섭의 현대건축 인식에 관해서는 Kim(2022) 참조. 그의 「로서아의 건축」이 실린 『신흥』 7호(1932.12)에는 여러 이념적 성향이 나타나지만, 그 가운데 사회주의적·유물론적 입장의 글이 부각됐다. 마르크스주의를 여타 이론보다 우위에 둔 신남철의 「민족이론의 삼형태」가 대표적이다(Kim, 2022).

건축이론의 최첨단’으로 높이 평가했고, 홍윤식은 마르크스주의적 뉘앙스를 엿보이며 건축예술을 ‘지배계급의 계급적 표현’으로 규정했다(Park, 1931; Hong, 1937).²¹⁾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해방 직후 건축계에도 사회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움직임이 나타났다. 조선건축기술단·조선건축사회²²⁾ 등의 건축 직능단체 내부에는 진보적 건축인 그룹이 형성됐고, 조선조형예술동맹²³⁾·조선공업기술협회²⁴⁾ 등의 좌익단체에는 건축분과가 설치됐다(Song, 1993; Ahn, 1996, Korea Institute of Architecture [KIA], 2000).

진보적 건축인 그룹의 중심에는 일제강점기 후반에 건축 교육을 받은 젊은 세대가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로 경성고등공업학교(이하 경성고공)나 일본 유학을 통해 전문 교육을 받았다. 김한섭의 회고에 따르면, 그는 일본대학 고등공업학교(이하 일본고공) 유학 시절 동기생 오영섭으로부터 민족의식과 건축관에 큰 영향을 받았으며, 진보적 성향을 지닌 일본인 교수로부터도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Kim, 1984). 당시 조선의 사회주의가 민족해방과 밀접하게 연관됐고, 오영섭의 좌익단체 활동과 성낙천의 글에서 드러나는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1920~1930년대 일본에서 유통된 사회주의 건축론을 접했을 가능성이 크다.²⁵⁾ 한편 경성고공 출신인 이흥구(19??~??, 1941년 졸업)는 해방 후 『조선건축』 편집위원을 맡아 사회주의 건축론을 적극적으로 소개했다(Song, 1993).²⁶⁾

젊은 세대 상당수는 졸업 후 전지 상황으로 군수산업체에 배치됐다가 해방 후 민간회사나 교육계로 진출했다. 그러나 미군정이 일제의 제도를 유지하며 기성 건축계를 중심으로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이들은 비주류에 머물렀다(Song, 1993; Kim & Lee, 2006). 이들이 평등주의 지향의 사회주의적 담론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기성 건축계에서 경험한 차별이 반영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²⁷⁾

진보적 건축인들의 주장은 담론 차원에서는 활발했으나

구체적인 건축물로는 실현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세대적 특성과 사상적 배경은 해방 후 한국 건축계가 새로운 이념적 지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했다.

3. 『조선건축』의 사회주의적 건축 담론 분석

3.1 해방 이후 건축계의 상황과 『조선건축』

해방은 한국 건축계에 사상적 자유를 가져다주며 다양한 활동과 발언을 가능케 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진 경제적·기술적 제약과 미군정이라는 변화된 여건 속에서 이들이 뚜렷한 물리적 성과를 내기는 어려웠다. 그럼에도 건축인들은 제한된 환경 속에서 사회의식을 드러내고 새로운 건축의 실현을 모색했다.

이들의 활동과 주장은 당시 간행된 『조선건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선건축기술단(협회)(이하 기술협회)의 기관지인 『조선건축』은 해방 직후 유일한 건축 전문지로 1947년 3월 창간호부터 1949년 5월 3권 2집까지 총 9집(호)이 발간됐다. 기술협회는 정관에 “건국 국책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그 실시에 협력, 건축에 관한 사회의식의 계몽과 보급 등”을 주요 사업으로 내세우며 전문 기술단체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참여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Chosun Geonchuk Gisuldan, 1947).



a) Issue no. 1

b) Issue no. 9

Figure 1. Covers of *Chosun Geonchuk*
(Sourc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조선건축』에 수록된 글들은 앞서 언급한 젊은 건축가 세대의 사상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이흥구의 「건축사개론」은 1933년 집필된 니시야마의 「건축소사(建築小史)」를 재구성한 글로 일본 사회주의 건축론이 해방기 한국 건축인들에게 중요한 참고점이 됐음을 시사한다.²⁸⁾ 성낙천의 「건축경제사의 일고찰」은 유물사관에 입각한 경제사 해석을 바탕으로 오오카 미노루(大岡実, 1900~1987)의 저서들을 참고해 작성됐다(Ooka, 1932; 1935). 『조선건축』에는 프리체의 『예술사회학』 2장 「예술의 발생」의 번역본과²⁹⁾ 백남운의 『조선사회경제

28) 해방 이전에도 니시야마의 글이 한국에서 읽혔음을 전술한 홍윤식의 글을 통해 확인된다(Hong, 1937). 홍윤식은 각 시대의 위대한 건축양식을 “잉여노동력을 소비하는 지배계급의 건축과 기념비적 건축작품”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니시야마의 “各時代の「様式」は…餘剩勞動力をおのがために消費する支配階級の建築・モニュメント”라는 서술과 유사하다. 또한 공예운동, 아르누보, 분리파 등에 대한 서술에서도 니시야마의 영향이 드러난다(Nishiyama, 1948).

21) 이들의 서양 근대건축운동 인식에 관해서는 Kim & Kim(2023) 참조.
22) 조선건축사회는 1945년 12월 출범해 1955년 현재의 대한건축사협회로 발족했다.

23) 조선조형예술동맹(이후 조선미술동맹)은 1946년 조직된 좌익 계열 예술단체로 회화, 조각, 공예, 건축 4부문으로 구성됐다. 성낙천, 오영섭 등이 참여했다(Ahn, 1996, KIA, 2000).

24) 조선공업기술협회(이후 조선공업기술연맹)는 1945년 조직된 기술인 단체로 건축, 토목, 화학, 전기 등의 분야가 참여했다(Lee, 2025).

25) 김한섭(1920~1990)은 송정공업학교 졸업 후 일본고공에서 유학해 1941년 졸업했다. 오영섭(1918~??)은 소화공과학원 수료 후 박길룡건축사무소를 거쳐 1941년 일본고공을 졸업했다. 해방 후 조형미술동맹과 조선건축기술협회에서 활동했으며 한국전쟁 중 월북했다. 성낙천(1919~??)은 오영섭, 김한섭과 함께 일본고공에서 수학해 1942년 졸업했다. 이후 이회태와 신흥건축사무소를 운영하다가 한국전쟁 후 브라질로 이민했다(Kim, 1984; Song, 1993).

26) 이흥구는 한국전쟁 중 월북했는데, 1년 선배인 송민구(1920~2010)는 서울 수복 후에야 그의 좌익 가담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Song, 1975).

27) 예외적으로 손형순(1908~??)은 중견 건축인임에도 진보적 성향을 보인 인물로 공업전습소 졸업 후 총독부 내부부 건축과, 해방 후 조선주택영단에서 근무하며 젊은 진보적 건축인들과 교류했다(Song, 1993; Ahn, 1996).

사』(1933), 『조선봉건사회경제사』(1937)에서 발췌한 건축 관련 부분이 수록되어 사회주의 지식 수용의 일면을 보여준다.³⁰⁾ 또한 「북조선통신란」, 「뉴스스크랩」 등에 북한 건축사업과 활동이 소개되어 남북 간 건축계 교류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조선건축』은 서양과 일본의 사회주의 건축 담론 수용, 한국 건축사의 유물론적 해석, 북한 건축 활동 소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건축계에 사회주의적 관점을 매개하는 역할을 했다. 본 논문은 『조선건축』에 실린 글 중에서도 사회적 발언이 두드러지는 진보적 건축인들의 글에 주목하는데, 이는 서양 건축사와 토지 및 주택문제를 다룬 글로 나뉜다(Table 1).

3.2 유물사관에 입각한 서양건축사 서술

마르크스의 역사유물론에 따르면 생산 관계의 변화에 따라 사회는 원시공산제, 고대노예제, 중세봉건제, 근대자본주의, 사회주의를 거쳐 공산주의로 발전한다. 노예제부터 자본주의까지는 사적소유에 따른 계급투쟁이 존재하는데, 인류의 역사는 곧 계급투쟁의 역사로 규정된다(Marx & Engels, 1848/2018). 이러한 세계 보편주의적 역사 인식을 유물사관이라 하며, 한국 역사학계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한 역사학을 사회경제사학(이하 경제사)이라 한다. 앞장에서 살폈듯 유물사관은 1920년대 일본 지식인 사회에서 유행했고, 경제사는 1930년대 한국에서도 주류 학문으로 자리 잡았다. 1940년대 일제의 탄압으로 관련 연구가 잠시 중단됐으나 해방 이후 다시 활발해졌다(Kang, 1989). 건축사 분야에서도 이흥구와 성낙천의 글에서 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건축사에 있어서 역사 단계는 일반 사회경제사와 병행하여 결정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 그 시대의 지배적인 생산방법 생산관계가 건축의 사회적 역할을 결정하는 본질적 요소가 되는 것이다(Lee, 1947a).

경제구조-생산관계를 토대로 하여 전 사회제도, 사회사상, 정치적 견해, 정치적 기관, 문화, 예술 등의 성격을 결정하며 ... 사회의 산물인 건축은 그 사회의 생산의 발전에 따라 풍부하여지고 그 사회의 성쇠의 역사를 그 자신[건축]의 역사 속에 가지고 있다(Seong, 1947a).

1) 이흥구의 「건축사개론」

전술했듯 「건축사개론」은 니시야마의 「건축소사」를 참조해 정리한 글이다. 니시야마는 1933년 교토제국대학 졸업 당시 「주택계획의 과학적 고찰(住宅計畫の科學的考察)」이라는 졸업논문의 서문으로 「건축소사」를 작성했으나 출판하지 못했다. 이후 구라타 치카타다(蔵田周

忠)의 권유로 1933년 9월부터 1934년 2월까지 잡지 『국제건축』에 이를 연재했다(Nishiyama, 1948).³¹⁾ 이제 「건축소사」와 「건축사개론」을 비교 분석해 사회주의적 입장의 지식이 수용되고 재구성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건축소사」는 ①서론, ②계급사회와 건축, ③전(前) 자본주의 문명사회의 건축, ④산업혁명 후의 건축, ⑤새로운 건축가층의 발전, ⑥세계대전 후의 건축, ⑦건축생산의 현 단계와 우리나라[일본]의 건축가층, 총 7장으로 구성됐다.

니시야마는 글의 목적을 두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는 “건축의 사회적 역할과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 지어진 건축이 ... 어떻게 변증법적으로 발전해 왔는가를 사회 일반의 역사적 발전 속에서 추출” 하는 것이고, 둘째는 건축가가 “기술자 이데올로그로서 ... 다양한 계급관계를 반영·발전시키는 건축론의 영역”을 분석하는 것이다(Nishiyama, 1948). 그런데 이흥구는 「건축사개론」에서 “건축의 사회적 역할과 사명이 ... 여하히 발전되어 왔는가를 사회 일반의 역사적 발전 속에서 유물 변증법적 통일하에 파악” 하는 첫 번째 목적만을 채택했으며, 이에 따라 건축가의 역할을 다룬 부분은 삭제했다(Lee, 1947a). 이러한 선택적 접근은 개별 건축가의 주체성보다는 역사의 객관적 법칙에 더 중점을 둔 이흥구의 관점을 보여준다. (바꿔 말한다면 당대의 한국 건축계가 특정 건축가[가] 사례를 다룰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는 니시야마 원문의 서론 일부와 4장, 6장을 삭제하고³²⁾ <Table 2>와 같이 목차를 재구성했다.

Table 2. Chapter comparison of Nishiyama and Lee

Nishiyama's <i>A brief history of architecture</i> (1933)	Lee's <i>Introduction to architectural history</i> (1947)
1. Introduction	1. Introduction
2. Architecture in class societies	2. Architecture of the primitive age
3. Architecture in pre-capitalist civilizations	3. Architecture of ancient civilizations
4. Architecture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4. Architecture in the feudal middle ages
5. Development of a new architectural class	5. Architecture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6. Architecture after the World War I	6. Architecture after the World War I
7. Current stage of architectural production and architectural class in Japan	-
-	7. Conclusion

「건축사개론」은 「건축소사」의 약 30% 분량으로, 이는 「건축소사」가 6회 연재된 것에 비해 「건축사개론」이 2회 연재에 그친 것에서도 확인된다. 재구성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먼저 니시야마가 프리체, 마르크스, 엥겔스 등을 직접 인용하며 풍부하게 서술

29) 이 책의 한국어 번역본 발간 직전 해당 장이 전창옥의 번역으로 『조선건축』에 먼저 게재됐다(Friche, 1929/1947). 프리체의 원서 및 번역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원서 『Социология искусства』, 1929; 일본어판 『芸術社会学』, 蔵原惟人訳, 叢文閣, 1930; 한국어판 『예술사회학』, 김용호역, 대성출판사, 1948. 고유섭의 프리체 수용에 대해서는 Kim(2022) 참조.

30) 『조선건축』 1~7호에는 「문헌초록」란이 마련되어 백남운 저서에서 발췌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주거, 토목, 건축 관련 내용이 수록됐다.

31) 니시야마는 1933~1934년 『국제건축』에 연재한 「건축소사」와 1937년 6월 『건축과 사회』에 발표한 「일본건축운동사(日本建築運動史)」를 엮어 1948년 『건축사노트(建築史ノート)』로 출간했다. 그는 서문에서 시간과 역량의 한계로 심각한 오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형대로 정리했다고 밝혔다(Nishiyama, 1948).

32) 4장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서구 건축가 계층의 등장을 다루며 자본주의 체제에서 건축가의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을 설명한다. 6장은 1930년대 일본의 건축 현황과 건축가들의 활동을 분석한다.

한 데 반해, 이흥구는 이를 일반적 서술로 대체하거나 생략했다. 또한 데스틸, 바우하우스, 코르뷔지에를 제외하면 구체적인 건축가와 건축물에 대한 설명도 생략했다. 목차 구성도 니시야마보다 시기 구분을 명확히 해 ②원시, ③고대, ④중세, ⑤산업혁명, ⑥일차대전 이후로 나뉜 유물사관적 발달사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조정했다(Table 2).

이흥구는 니시야마의 다양한 논의 중 건축의 계급성을 집중적으로 선택해 강조했다. 서론에서부터 건축사를 “주제적 건축의 역사”라고 규정하고 “주제적 건축은 기술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지배계급의 건축이었기 때문에 계급적 표현과 억압수단 속에서 건축의 역할을 볼 수가 있다”고 밝혔다(Lee, 1947a). 이는 니시야마가 원문 2장에서 언급한 “지배계급의 자기표현(곧 억압수단)”, “잉여노동력을 자신을 위해 소비하는 지배계급의 건축·기념물”과 같은 구절들을 서론으로 끌어올려 전체 논의의 기조로 삼은 것이다. 아울러 그는 ‘계급’, ‘착취’, ‘권력’ 등의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원문에 분산된 계급성 논의를 서론에 집중 배치했다. 이와 같은 구성상의 변화는 건축의 계급성을 건축 이해의 핵심 전제로 설정하려는 그의 의도를 보여준다. 반면 양식사나 미학에 관한 내용은 큰 흐름만 언급하고 구체적 사례를 생략해 최소화했다.

이러한 선택적 수용과 재구성은 이흥구의 사회주의 건축 담론이 학문적 엄밀성보다는 현실 개입을 위한 논거로 기능했음을 보여준다. 그는 건축의 계급성을 전면화하고 미학적 접근을 최소화해 “아카데미즘에서 탈각하고 건축을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고구함으로써 원칙적인 기술 이념을 확립하여 민주주의적 인민 건축 창조에 노력하자”는 실천적 결론을 도출했다(Lee, 1947b). 특히 많은 내용을 생략했음에도 주택문제는 자세히 다루었는데, 이는 사회주의를 당면한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방안으로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동일한 주택문제에 대해서도 니시야마보다 비판적 어조를 강화했다.

우리나라 건축가층 사이에서 막연한 주목을 끌고 있는 ‘주택건축의 중요성’은 주택문제의 이러한 사회정책적 측면에서가 아니라, 소부르주아적 측면에서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Nishiyama, 1948, 이하 밑줄 필자).

주택건축의 중요성이 사회, 정치적 면에서 원칙적으로 취급되지 않았고, 단지 소부르주아적 측면에서 막연하게 고찰되었기 때문에 주택문제는 결론적으로 허구호에 그치고 말았던 것이다(Lee, 1947b).

이처럼 이흥구의 작업은 원문의 구조적 틀을 유지하면서 서도 해방기 한국의 상황에 맞게 선택적으로 변형한 전략적 수용이라 할 수 있다. 서론에서 계급 논리를 전면화해 주제 의식을 명확히 하고, 본문에서는 건축가 개인보다는 역사의 발전 구도에 집중했다. 또한 주택문제라는 현실적 쟁점을 상세히 다루어 이론과 실천을 연결하려 했다. 이는 당시 한국 건축계의 현실과 필요에 맞게 사회주의 건축론을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비판적 독해의 측면도 엿보인다.

2) 성낙천의 「건축경제사의 일고찰」

성낙천의 「건축경제사의 일고찰」(이하 「일고찰」)은 해방 후 발간된 국내 경제사 저서들과 오오카 미노루의 건축양식 관련 저서들을 참고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성낙천은 본문에서 『경제사』를 인용한다고 언급하나 구체적인 서지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1946년 최호진의 『일반경제사』와 라피두스·오스트로비차노프 공저의 『세계경제사개론』 편역본이 출간되면서 해방 후 최초의 한글 경제사 서적이 등장했다(Choi, 1946; Lapidus & Ostrovityanov, 1928/1946).³³⁾ 두 저서를 검토해보면 성낙천이 이들을 참고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2. Choi Hojin's *General economic history*



Figure 3. Lapidus & Ostrovityanov's *World economic history*

(Source: National Library of Korea)

「일고찰」은 『일반경제사』와 장(章) 구성이 유사하나 내용적으로는 『세계경제사개론』과 더 부합한다. 두 저서는 생산관계와 경제구조를 기준으로 한 역사 단계를 채택하며, 성낙천도 이러한 유물사관적 시대 구분을 수용했다(Table 3). 특히 『세계경제사개론』과는 노예제와 도시 발달 분석에서 상당한 접점을 보인다. 노예를 “말하는 도구”로 개념화한 표현, 노예제 의존 심화를 고대사회 몰락의 구조적 원인으로 보는 해석, 그리고 농업-수공업 분업을 중세도시 성장의 기반으로 서술하는 점 등에서 그러하다.

한편, 오오카의 저서는 『건축양식(建築樣式)』(1932)과 『고등건축학 제2권: 서양동양건축양식(高等建築學 第2卷: 西洋東洋建築樣式)』(1935, 이하 『서양동양건축양식』)으로 확인된다.³⁴⁾ 「일고찰」의 세부 목차 구성은 오오카의 두 저서 전반부와 유사하며(Table 3), 전반적인 전개 순서나 건축 용어, 사례 건축물에서 오오카 저서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³⁵⁾

33) 두 저서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최호진, 『일반경제사』, 이상서원, 1946; Lapidus & Ostrovityanov, 『세계경제사개론』, 조선문학사편역, 1946. (원서 『Учебник политической экономии』, 1928; 영어판 『An Outline of Political Economy』, 1929).

34) 오오카는 1926년 동경제국대학 건축학과를 졸업한 건축가·건축사학자로, 1932년 일본건축학회의 실업학교 교육 표준화 사업의 일환으로 『건축양식』을 집필했다(Ooka, 1932). 이 책은 서양·동양 건축양식을 다루고 마지막 17장에서 일본 건축양식을 소개한다(Table 3). 이후 그는 『고등건축학』(1932-1935, 총 26권) 총서의 제1권 『일본건축양식』(1934)과 제2권 『서양동양건축양식』(1935)을 저술했다(Ooka, 1934; 1935). 전자는 『건축양식』 제17장을 독립 저서로 확장한 것이고, 후자는 나머지 부분을 재구성한 것이다. 『고등건축학』 총서는 일본 건축학의 체계화에 기여했다고 평가받는다(Kim, 2023).

Table 3. Chapter comparison of Choi, Lapidus & Ostrovityanov, Seong, and Ooka

Choi's <i>General economic history</i> (1946)	Lapidus & Ostrovityanov's <i>World economic history</i> (1946)	Seong's <i>A study on the economic history of architecture</i> (1947)	Ooka's <i>Architectural styles</i> (1932)	Ooka's <i>Western and Eastern architectural styles</i> (1935)
1. Introduction	-	1. Introduction	1. Introduction	-
2. Primitive society	1. Primitive communism	2. Primitive society	2. Prehistoric architecture	
		A. Egyptian architecture	3. Egyptian architecture	1. Egyptian architecture
3. Greece		B. Mesopotamian architecture	4. West Asian architecture	2. Mesopotamian architecture
Ancient society	2. Slave-owning system	C. Greek architecture	5. Greek architecture	3. Greek architecture
Rome		D. Roman architecture	6. Roman architecture	4. Roman architecture
		E. Early christian architecture	7. Early Christian architecture	5. Early Christian architecture
			8. Byzantine architecture	6. Byzantine architecture
Manor system	3. Feudalism	A. Byzantine architecture	9. Islamic architecture	7. Development of medieval architecture
4. Feudal society		B. Romanesque architecture	10. Romanesque architecture	8. Romanesque architecture
Peasant uprising		C. Gothic architecture	11. Gothic architecture	9. Gothic architecture
Urban economy	4. Feudalism and democratic revolution	D. Renaissance architecture	12. Revival architecture	10. Renaissance architecture
			13. Late Renaissance architecture	11. Architecture after Classicism
5. Asiatic mode of production			14. American architecture	12. Modern architecture
			15. Modern architecture	13. Indian architecture
6. Capitalist era			16. Chinese, Indian, and Chosun architecture	14. Chinese architecture
			17. Japanese architecture	15. Chosun architecture

오오카는 1927년부터 1939년까지 일본대학에서 근무했기에 이 저서들은 그의 교육 내용을 반영하기도 하고, 출판 뒤에는 교재로 활용됐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오오카는 1939년 6월 일본대학을 떠났고 성낙천은 이후 일본고공에 입학한 것으로 추정되어 성낙천이 오오카에게 직접 배웠을 것 같지는 않다.³⁶⁾ 그럼에도 성낙천이 재학 중 오오카의 저서를, 특히 교과서 격으로 발행된 고등건축학 시리즈의 하나인 『서양동양건축양식』을 교재로 접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 책은 출판 즉시 경성고공에도 입고됐었다(Kim, Choi, & Kim, 2023).

Figure 4. Ooka's *Architectural styles*

(Source: National Diet Library, Japan)

Figure 5. Ooka's *Western and Eastern architectural styles*

(Source: National Library of Korea)

35) 이러한 영향의 한 예로, 이집트 건축 설명에서 성낙천은 “시체는 미이라로 하여 영구히 보존하기에 힘쓰며 … 이 관념은 가장 참학성을 가지고 사자의 종자, 즉 노예는 그 장의 날 참살당하야” 라고 서술했다(Seong, 1947c). 그런데 이는 오오카의 “死屍を永劫に保存する努力は終にミイラを造つた。… この觀念はかなりの慘虐を伴つて、死者の總ての從者は、その葬儀の日に於て慘殺され” 와 표현이 유사하다(Ooka, 1935).

36) 오오카는 일본대학에서 1927~1939년 고등공업학교(고공) 강사를, 1929~1939년 전문부 강사를 겸임했다(Society of Architectural Historians of Japan, 1988). Song(1993)이 일본대학 동창회 명부를 조사한 결과, 성낙천은 1942년 졸업생으로 1939년 가을학기 이후 입학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의 선배들인 오영섭과 김한섭이 오오카의 강의를 수강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성낙천이 오오카 저서의 구성과 서술 방식을 참고하면서도, 건축에 대한 해석 방향은 크게 달랐다는 사실이다. 오오카의 두 저서가 건축양식을 체계적, 기술적, 가치중립적으로 설명하는 반면, 「일고찰」은 마르크스주의 유물사관에 기반해 건축을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 장치로 해석한다. 이러한 차이는 다음 인용문에서 잘 드러난다.

언덕 위를 아크로폴리스라 칭하며, 국민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장소로 여기에 신전을 세우고 보물을 보관하되, 일단 사변이 일어나면 농성하며 성곽 역할을 하는 곳이다(Ooka, 1935).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단아한 모양을 보이고 서 있는 파르테논 신전 등 … 사람들을 위압하는 위력의 감을 느끼게 하고 … (Seong, 1947a).

재판소 및 상업거래소로서 건설된 바실리카는 … 로마인이 얼마나 법률을 중시했는가 하는 실증이 된다. … 목욕탕은 오늘날의 클럽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회생활의 휴양장이며 … (Ooka, 1932).

노예 소유자적 사회 질서 유지와 자기 계급의 발전을 도모하야 법으로서 사회를 통제하려고 재판소를 건립하고, 또 금일의 구락부 성격을 띤 유한계급의 오락장인 목욕장을 중심으로 건설한 테르메르의 대온천 … (Seong, 1947b).

성낙천은 해방 직후 건축계의 제약된 조건 속에서도 경제사적 분석과 건축사적 논의를 결합하려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일고찰」은 오오카의 전반적 구성을 따르되, ‘원시사회-고대사회-봉건사회’라는 유물사관적 시대 구분을 도입해 각 시기의 건축사를 사회경제적 조건과 연결 지어 설명했다. 성낙천은 이 과정에서 참고문헌의 내용을 자신의 관점으로 소화해 서술했는데, 이는 제한된 자료 환경에서 니시야마의 글을 상당 부분 그대로 옮겼던 이흥구의 「건축사개론」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다만 분량상의 제약으로 구체적 사례나 세부 설명이 축약됐고, 경제사적 해석과 건축양식 분석 간의 연계도 개괄적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전문적 건축사 연구의 심화보다는 당대 건축계에 사회경제적 관점을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국 「일고찰」은 식민지기 일본에서 도입된 건축사 교재를 단순 수용하는 것을 넘어 저자의 이데올로기적 지향에 따라 비판적으로 재해석한 의미있는 시도였으나, 학문적 완성도 면에서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평가할 수 있다.

3.3 토지와 주택문제

해방 이후 토지와 주택문제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과제였다. 한국 정치는 냉전체제 형성 속에서 다양한 정치세력간 경쟁으로 전개됐는데, 여운형의 조선인민당과 박헌영의 조선공산당 등 사회주의 정당들은 토지의 무상분배, 중요산업 국유화, 친일 재산 몰수 등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Shim, 1993). 한편 귀환동포, 월남인, 상경 인구의 급증으로 서울의 주택문제는 심각해졌다. 미군정과 이후 단독정부는 적산(敵産)가옥 분배, 전제민(戰災民)주택 건설 등을 시행했지만 수요를 감당하기엔 부족했다(Yu & Kim, 2024).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일부 건축인들은 기존의 자본주의적 접근만으로는 주택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 당시 사회주의 정당들의 정책이 주목받으면서 이들 역시 사회주의 건축론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했을 것이다. 본 연구가 『조선건축』의 논고들에서 도출한 ‘사회주의적 관점’은 ①마르크스주의 유물론적 토대-상부구조론, ②사회주의 국가의 주거권 보장 원칙, 그리고 ③국가 주도의 계획 경제적 개입 방식이다. 이는 당시 해당 건축인들이 완전한 사회주의자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주의 이론과 정책에서 유용한 개념들을 선택적으로 수용했음을 의미한다.

토지와 주택문제를 다룬 글들은 건축사 서술에 비해 짧은 분량이지만 비판적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 참여적 성격이 강했다. 건축사 서술이 정도는 다르지만 학술적 객관성 유지를 전제로 한 것과 달리, 이 글들은 현실 문제에 대해 주관적이고 선동적인 성격을 드러냈다.

1) 유물론적 토대-상부구조론³⁷⁾

이들은 마르크스주의의 토대-상부구조론을 응용해 주택을 사회를 구성하는 ‘물질적 기반’으로 보았다. 즉 주택을 생산조건의 토대로 이해하고, 정치·경제·문화와 같은 상부구조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파악한 것이다. 손형순은 “주거는 국가 구성의 요소이다. 환원하면 나라는 주거의 연합체이다”라며 “주거는 국가 입장에서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발원소이며 대상물”이라고 했다(Son,

1947). 이흥구 역시 “주택이란 인간 생활의 환경이며 생활 표현인 동시에 인간 활동의 원천인 곳”으로 보았다(Lee, 1947c). 동시에 이들은 토대와 상부구조의 변증법적 관계를 인정해 주택을 역사발전 단계를 보여주는 ‘사회적 지표’로도 파악했다. 손형순은 “주택이란 … 이전 시대에 사회적 발전 단계를 거치며 변천되는 만큼 언제든지 그 민생 자체의 문화 수준을 표현시키는 수단이 된다”고 설명했다(Son, 1948).

이러한 접근은 현실 비판에서도 나타난다. 과거의 봉건적·계급적 잔재를 극복해야 할 문제로 상정하고 식민지 경험이라는 한국적 상황에 맞게 계급문제와 식민문제를 결합시켰다. 이흥구는 “조선 재래식 주택은 시대의 문화와 발전에 병진할 수 없는 봉건적인 역사적 전형 그대로 유지시킴으로써 봉건 문화의 근대 문화로의 전환을 저지하였다”고 비판했다(Lee, 1947c). 여기서 봉건적 주택(토대)이 봉건 문화(상부구조)를 재생산한다는 구조적 관계가 드러난다. 손형순도 “쇄국적이고 봉건적인 전제 정치의 반세기간 왜적의 식민 정책 하에서 우리 민족으로서 모든 진화의 기회란 말살되었다”며 “특수 계급에 한한 주택은 우리 생활에 실용적인 효과에 있어 무가치하다”고 지적했다(Son, 1948).

이러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화적·이데올로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흥구는 “새로운 건설을 요구하는 현 단계에서는 생활 그 자체가 재정리되어야 하며, 주택문제는 생활의 재정리와 새로운 문화창조라는 견지에서 접근”해야 함을 주장했다(Lee, 1947c). 이는 물질적 조건(주택)의 변화와 의식적 변화(문화창조)가 상호연동되어야 한다는 변증법적 사고를 보여준다.

2) 주거권 보장

주거를 시장의 상품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 생존조건으로 보는 관점도 나타났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주거문제가 곧 계급문제의 반영이며,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인간다운 존재 조건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고 주장했다(Marx & Engels, 1873/2019). 주택문제를 다룬 논고들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었다. 특히 엥겔스의 주거문제론이나³⁸⁾ 소련 헌법³⁹⁾ 등 당시 사회주의 이론과 정책의 영향을 일부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손형순은 이러한 주거권 개념을 바탕으로 피난민, 귀환민, 노숙자 등 민중을 주택정책의 우선 대상으로 설정했

38) 엥겔스의 「주택문제에 대하여(Zur Wohnungsfrage)」(1873)는 당시 독일의 주거난을 분석해 노동자의 열악한 주거조건을 자본주의 착취의 결과로 규정하고, 부르주아적 개량주의 해결책을 비판하며 사적 소유권 폐지를 통한 주거권의 보편적 실현을 주장했다(Marx & Engels, 1873/2019).

39) 1936년 12월 5일 채택된 소련 헌법(스탈린 헌법)은 제6조에서 “도시 및 공업지역의 기본 주택기금은 국가재산, 즉 전인민의 재산이다(основной жилищный фонд в городах и промышленных пунктах являютс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ью, то есть в сенародным достоянием)”라고 명시했다(Constitution of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n.d.).

37) 이러한 접근은 1980년대 말 건축계에서 논의된 ‘사회적 건축이론’을 선택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민주화운동의 영향을 받은 ‘건축운동’ 시기(주3 참조), 예컨대 김한준, 박인석, 이상현, 함인선 등은 마르크스주의 건축론의 정리 작업을 시도한 바 있다(Kim et al., 1987; Lee, 2022).

다. 그는 “건국과 민주를 말하기에 앞서, 먼저 주택으로 하여금 국가와 국민을 형성케 하여야 한다”며 주거 보장을 국가 건설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Son, 1947). 또한 “우리 주택이란 일반 주택 또는 대중적 주택이라야 할 것”이며 “대중적 관련성에서 균등적 행복을 가질 만한 실용적 효과가 있음에서만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며 보편적 주거권을 주장했다(Son, 1948).

이는 당시 미군정과 우익 정치세력이 적산가옥 불하에 있어 유력자를 우선 배정하고, 토지분배에 있어 유상분배 원칙을 고수한 것과는 대조적이다(Shim, 1993; Lee, 2013). 미군정과 정부가 주거를 재산권의 문제로 본 반면 이들은 사회권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3) 국가 주도의 계획 경제적 개입

주택문제 해결 수단으로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채택하던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 모델과 재분배 방식을 제안했다. 이흥구는 당시 상황을 “전대미문의 양적 주택난”으로 보고 시장 실패에 따른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의 주택정책이 “기만주의 내지 사회 개량주의”에 머물러 근본적 해결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조선은 이를 답습하지 말고 보다 전면적인 개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Lee, 1947c).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주의적인 주택 의식과 자기 본위의 협소한 견해를 벗어나 사회적인 대국적인 입장에서 주택을 평가”하고, “강대하고 국가 공익성을 가진 특수기관을 설립하고 이로 하여금 근본적 경제 계획 아래 주택에 관한 문제를 전적으로 담당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Lee, 1947c; Son, 1947).

이흥구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국토계획과 연계된 연도별 계획 수립, 주택건설의 공익적 국가 사업화, 국가 주도의 건축 규격 제정, 전문 기술·연구기관의 설치, 생활개량 혁신을 통한 주택의 봉건성 극복 등을 제안했다(Lee, 1947a). 특히 분배 문제 해결을 위해 적산 주택의 중복 점거 배제, 거주 면적 제한 및 대주택 유희 공간 개방, 유희 중인 대형 건물의 주택 전용, 국유지와 적산 토지의 무주택자 분배 등의 응급 대책도 제시했다(Lee, 1949).

3.4 사회주의 수용의 특징과 한계

해방기 건축인들의 사회주의 이론 수용은 한국적 특징을 보인다. 이들은 유물론적 토대-상부구조론, 사회적 평등, 주거 보장, 토지 및 주택문제의 국가적 해결, 국유화 등 사회주의 핵심 이념을 수용하면서도 반봉건·반식민적 입장을 뚜렷하게 드러냈다. 조선 사회의 주택난과 민생 문제의 근본 원인을 식민지배 유산에서 찾았으며, 귀환 동포들의 주거권을 민족해방의 정당한 결과로 인식했다(Lee, 1947c; Son, 1947). 이는 정통 마르크스주의의 반자본주의 투쟁과 달리, 한국에서는 봉건주의와 식민주의 잔재 청산이 더 시급한 과제로 인식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들의 사회주의 수용은 선택적이고 온건한 성격을 띠었다.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 ‘혁명’ 등 사회주의의 핵심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자

본주의에 대한 직접적 비판도 드물었다. 자본주의 비판은 주로 열악한 주거 현실 묘사나 서구 복지국가 모델의 한계를 우회적으로 지적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Lee, 1947c; Son, 1947). 이는 이들이 정치적 급진화보다는 전문적 해결책 제시에 집중했기 때문으로 보이며,⁴⁰⁾ 미군정의 반공정책 하에서 용어 사용에도 제한이 있었을 것이다. 결국 이들은 사회주의를 정치적 혁명 이데올로기보다는 사회개혁을 위한 실용적 방법론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이러한 수용은 원칙적이고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다. 구체적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체계화의 부족이다. 사회주의 이론을 피상적으로 적용했을 뿐 한국 건축의 상황에 맞는 독창적 이론화에는 이르지 못했다. 둘째, 실천 전략의 부재이다. 국가 개입을 주장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정치세력과 연대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없었다. 셋째, 공간 계획의 구체성 부족이다. 사회주의적 원칙은 제시했지만, 실제 주택설계나 도시계획에서 이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미흡했다. 이는 해방기 건축인들의 사회주의 모색이 체계적 이론화와 실천으로 발전하지 못한 한계를 보여준다.

4. 결 론

본 연구는 『조선건축』에 수록된 건축인들의 글을 통해 해방기 한국 건축계의 사회주의 수용양상을 고찰했다. 해방공간이라는 특수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들이 사회주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재해석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그간 조명받지 못했던 한국 근대건축사의 사상적 측면을 규명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해방기 건축인들은 사회주의 사상을 단순한 정치이념이 아닌 건축의 사회적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법론적 틀로서 수용했음을 확인했다. 이들은 유물사관에 입각한 건축사 서술을 통해 건축을 지배계급의 산물이 아닌 역사발전과 사회변혁의 매개체로 인식했으며, 주택과 토지 문제에서는 주거권 보장과 국가 주도의 계획 경제적 개입을 통한 민중 중심의 해결책을 모색했다. 특히 기존 사회주의 이론의 계급투쟁 중심 논의와 달리, 한국적 맥락에서 반봉건·반식민의 과제가 결합된 수용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수용의 배경에는 일본을 경유한 국제적 사회주의 건축론의 유입, 1920년대부터 조선 사회에 내재화된 사회주의 인식, 식민지 시기 건축 교육의 영향, 해방공간의 사상적 자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1930~1940년대 일본 유학을 경험한 젊은 세대가 해방 후 이러한 담론 형성을 주도하면서, 니시야마 우조와 오오카 미노루의 건축론을 선택적으로 수용·재구성했다. 또한 『조선건축』에는 프리체의 예술사회학과 백남운의 경제

40) 건축계의 ‘좌익성’은 문학, 미술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했는데, Kim & Lee(2006)도 지적하듯 이는 건축 분야의 특성에 기인한다. 건축은 물리적 시설과 자본의 투자, 정책승인을 필수로 하는 분야 특성상 제도권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 저서 등이 수록되어 다양한 사회주의 관련 지식을 접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계급, 주택, 토지, 분배 등의 사회주의 주요 개념은 건축 담론 속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됐다. 이들은 건축을 지배계급의 산물로 규정하며 민중을 위한 건축을 추구했고, 주택을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사회적 생산의 물질적 토대로 인식했다. 또한 주거권을 기본권으로 설정해 국가의 보장 의무를 강조했고, 적산 토지의 무상 분배와 국유화를 통한 재분배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의 담론은 구체적 실천 전략의 부재와 공간 계획의 미흡함을 드러내며 이론적 차원에 머물렀다는 한계를 보였다.

단독정부 수립과 한국전쟁으로 사회주의 담론은 급격히 단절됐고 건축계의 진보적 상상력 역시 억압됐다. 그럼에도 해방기 건축인들이 제기한 건축의 공공성, 주거권의 보편적 보장, 민중 중심의 건축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화두로 남아있다. 이러한 담론은 비록 분단 체제하에서 억압되고 잊혀졌지만, 실현되지 못한 건축 기획의 흔적이자 정치이념과 건축지식이 교차한 역사적 증거로서 복원할 가치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 근대건축사의 공백을 보완하고 건축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확장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향후 연구에서는 사회주의적 건축 담론이 실제 건축작품이나 도시계획에 미친 영향, 북한 건축과의 비교 등을 통해 진보적 건축 사상의 지속과 변용 과정을 추적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 Ahn, C. (1996). *50 Years of Korean Modern Architecture*. Seoul, Jaewon.
- Amanai, D. (2015, March). *Sustainable artistic community*. <https://www.10plus1.jp/monthly/2015/03/issue-04.php>
- Cho, H. (2015). *The Three Years After Liberation*. Seoul, Saenggak Jeongwon.
- Cho, K. (1998). *Characteristics of Korean Architecture in the Late 1940s as Manifested in Chosun Geonchuk*. Thesis, Yonsei University.
- Choi, B. G. (2014). The popularization movement of socialism in the 1920s and 'Jo-Seon-Mun-Ye'. *Journal of Bangyo Language and Literature*, 37, 201-229.
- Choi, H. (1946). *General Economic History*. Seoul, Isang Seowon.
- Chosun Geonchuk Gisuldan (1947). Regulations of the Chosun Geonchuk Gisuldan. *Chosun Geonchuk*, 1(1), 6-8.
- Constitution of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n.d.). *Garant.ru*. Retrieved September 1, 2025 from <https://constitution.garant.ru/history/ussr-rsfsr/1936/>
- Friche, V. (1947). The origin of art (C. Jeon, Trans.). *Chosun Geonchuk*, 2(1), 4-5. (Original work published 1929).
- Fujimori, T. (1993a). *Modern Architecture in Japan 1: Bakumatsu and Meiji*. Tokyo, Iwanami Shoten.
- Fujimori, T. (1993b). *Modern Architecture in Japan 2: Taisho and Showa*. Tokyo, Iwanami Shoten.
- Funo, S. (1981). Architectural dissolution: the commodification of total social space (建築の解体: 社会的總空間の商品化). In *Notes on Post-war Architectural Theory* (戦後建築論ノート)(pp. 28-38). Sagami Shobo.
- Funo, S. (1994). Introduction to Nishiyama Uzo theory 1: emerging architecture and housing. *Kenchiku Bunka*, 576, 131-136.
- Hong, Y. (1937). Trends in the thought of *Moderne Baukunst* (근대건축예술사상의 동향). *Chogwang*, 3(9).
- Horikawa, T. (1984). *Modern Japanese Architectural Thought* (近代日本の建築思想). Tokyo, Shokokusha.
- Jang, S. (2013). *Socialism*. Seoul, Chaeksesang.
- Jung, C. (2000). A re-explication of the KAPF's dispersion and conversion. *The Journal of Modern Literary Theory*, 13, 311-330.
- Kang, J. (1989). Introduction and development of social economic history. *Guksagwan Nonchong*, 2, 167-194.
- Kawazoe, N. (1976). *Kawazoe Noboru critical essays 5* (川添登評論集 5). Tokyo, Sangyo Noritsu Tanki Daigaku.
- Kim, C. (2000). *Japanese Politics and Socialist Movement*. Seoul, Haenam.
- Kim, H. (1984). Interview. In Geumsung Architects and Associates (Ed.), *Architects Kim Hansup*(pp. 9-13). Total Design.
- Kim, H., Park, I., Lee, S., & Hahm, I. (1987). Reconsidering urban problems in Korea (한국 도시문제의 재인식). *Munhakgwa Yeogsa*, 1, 222-250.
- Kim, H. S. (2006). Another tradition of modern collective housing design.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22(7), 147-154.
- Kim, H. S. (2017). What is an architectural movement in Korea?. *Space*, 601, 22.
- Kim, H. S. (2022). Ko Yu-seop's perception of 'contemporary emerging architecture' in the early 1930s. *Journal of Architectural History*, 31(6), 47-58.
- Kim, H. S., & Kim, J. (2023). The modern movement in architecture in the West perceived by Park Dongjin and Hong Yunsick in the 1930s. *Journal of Architectural History*, 32(1), 21-34.
- Kim, J. (2023). *A Study on Korean Architects' Perception of the Modern Movement in Architecture in the Wes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sis, Korea University.
- Kim, J., Choi, S., & Kim, H. S. (2023). A study on the description of 'Modern Architecture' in Minoru Ooka's *Koutou Kenchikugaku* Vol. 2 (Tokyo, 1935). *Proceedings of the Spring Conference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Architectural History*, Korea, 403-406.
- Kim, S. Y., & Lee, D. E. (2006). Hybrid identity of Korean architects on 'Choson-Geonchook' in the colonial aftermath.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22(4), 207-216.

30. Kim, W. (1991).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Architectural World in the Formative Period from 1945 to 1955*. Thesis, Myongji University.
31. Ko, Y. (1931, January). On emerging arts, particularly cutting-edge architecture, *Donga Ilbo*.
32. Ko, Y. (1932). Russian architecture, *Sinheung*, 7, 57.
33. Kopp, A. (1993). *Soviet Architecture, 1923-1937* (Geonchuk Undong Yeonguhoe, Trans.). Seoul, Baleon. (Original work published 1985).
34. Korea Institute of Architecture (2000). *Korean Modern Architecture and Architects*. Seoul, Kimoonadang.
35. Kubo, S. (n.d.). *Marxist literature in pre-war Japan*. Retrieved September 1, 2025 from <http://www.ric.hi-ho.ne.jp/jlme/index.html>
36. Lapidus, I., & Ostrovityanov, K., (1946). *World Economic History*. (Chosun Munhaksa Trans.). Seoul, Chosun Munhaksa. (Original work published 1928).
37. Lee, H. (1947a). Introduction to architectural history 1. *Chosun Geonchuk*, 1(2), 35-37.
38. Lee, H. (1947b). Introduction to architectural history 2. *Chosun Geonchuk*, 1(3), 27-31.
39. Lee, H. (1947c). Miscellaneous thoughts on the housing problem. *Chosun Geonchuk*, 2(1), 24.
40. Lee, H. (1949). Urban issues of Seoul from an architectural perspective. *Chosun Geonchuk*, 3(1), 18.
41. Lee, J. (1993).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Institutes in Korea from 1945 to 1955*. Thesis, Myongji University.
42. Lee, J. H. (2025). The Chosun Industry and Technology Union's vision and efforts for the realization of 'industrialization of the nation'. *Journal of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112, 185-219.
43. Lee, J. W. (2022). Bumunundongron and the development of architectural movement in Korea in the 1980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38(5), 119-129.
44. Lee, Y. (2013). A study on argument of former Japanese owned restaurant of Seoul. *The Hyangto Seoul*, 84, 203-242.
45. Lim, K. (2003). *The Origins of Korean Socialism*. Seoul, Yeoksa Bipyeongsa.
46. Marx, K., & Engels, F. (2018). *Manifesto of the Communist Party* (J. Lee, Trans.). Seoul, Chaeksesang. (Original work published 1848).
47. Marx, K., & Engels, F. (2019). *The Housing Question and the Nationalization* (D. Kim, Trans.). Seoul, Nomad. (Original work published 1873).
48. Nishiyama, U. (1948). A brief history of architecture. *Architectural History Notes*. Tokyo, Sagami Shobo.
49. Nishiyama, U. (1962). Remembering Shinkai Goro. *Jutaku*, 11(6), 43.
50. Nishiyama, U. (1967). *Nishiyama Uzo Collected Works 1: Housing Planning*. Tokyo, Keiso Shobo.
51. Ooka, M. (1932). *Architectural Styles*. Tokyo, Dai Nippon Kogakukai.
52. Ooka, M. (1934). *Advanced Architecture 1: Japanese Architectural Styles*. Tokyo, Tokiwa Shobo.
53. Ooka, M. (1935). *Advanced Architecture 2: Western and Eastern Architectural Styles*. Tokyo, Tokiwa Shobo.
54. Park, D. (1931, March). On our housing (우리 주택에 대하여). *Donga Ilbo*.
55. Park, J. (2009). The introduction of socialism and translation of Marxist texts in the first half of 1920s. *Journal of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51, 301-323.
56. Park, H. Y. (2013). Geonchuk Undong Yeonguhoe. *Architecture and Society*, 25, 118-123.
57. Seong, N. (1947a). A study on the economic history of architecture 1. *Chosun Geonchuk*, 1(2), 29-31.
58. Seong, N. (1947b). A study on the economic history of architecture 2. *Chosun Geonchuk*, 1(3), 19-22.
59. Seong, N. (1947c). A study on the economic history of architecture 3. *Chosun Geonchuk*, 2(1), 17-18.
60. Shim, J. (1993). An analysis of progressive forces from liberation to government establishment. *Social Science Studies*, 2, 117-161.
61. Society of Architectural Historians of Japan (1988). The late professor Minoru Ooka. *Kenchiku Shigaku*, 10, 141.
62. Son, H. (1947). Nation-building and the importance of housing. *Chosun Geonchuk*, 1(3), 32.
63. Son, H. (1948). Current housing conditions and countermeasures. *Chosun Geonchuk*, 2(3), 4.
64. Song, M. (1975). 30 year in retrospect. *Review of Architecture and Building Science*, 19(4), 32-33.
65. Song, S. K. (2003). The arguments on 'new architecture' in Korea, during late 40'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19(3), 97-104.
66. Song, Y. (1993).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Modern Architecture in Korea*. Ph. 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67. Tsukamoto, T. (2024). *The Aporia of Marxism in Architecture*. Thesis, Meiji University.
68. Yamaguchi, B. (2011). The need for reflection on rationalism (合理主義反省の要望). In S. Fujii, & H. Yamaguchi, (Eds.), *Reprint Collection of Japanese Architectural Manifestos* (復刻版 日本建築宣言文集) (pp. 171-182). Shokokusha. (Original work published 1929).
69. Yatsuka, H. (1986). *The Aporia of Modern Architecture* (近代建築のアポリア). Tokyo, PARCO.
70. Yu, I., & Kim, H. S. (2024). Exploring U.S. military government's refugee housing efforts in Korea.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40(8), 159-170.

(Received Sep. 3, 2025/ Revised Sep. 26, 2025/ Accepted Oct. 1, 2025)